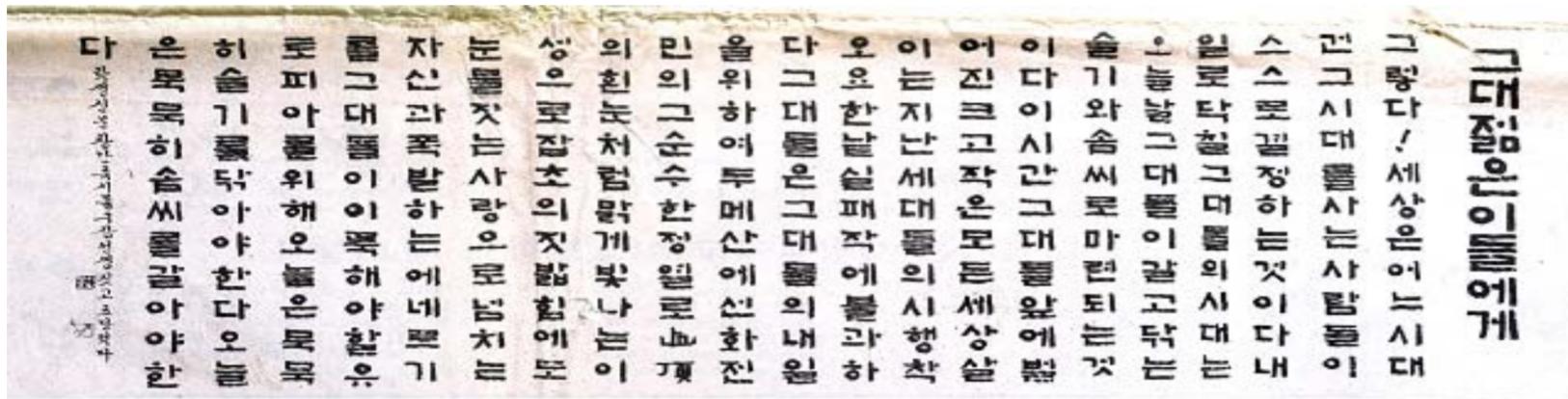


Twenty-Two

학생신문 22년엔 역사와 사람이 함께합니다

▶ 제1호 1988년 6월 23일

학생신문창간축시를 구상선생짓고 초당 적다



학생신문 연혁

1988년 4월 주간학생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문화 다00511호)
1988년 6월 주간학생신문 창간
1988년 8월 제1회 전국학생종합예술제
1989년 7월 제2회 전국학생종합예술제
1990년 7월 제3회 전국학생종합예술제
1991년 12월 제4회 전국학생종합예술제
1992년 9월 예산 청소년 수련마을 부지 매입(임야 213,552㎡)
1993년 1월 (주) 학생신문사 법인 설립
1993년 10월 중국조선족 소년보사와 자매결연
1993년 12월 예산 청소년 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 하가(충남 도지사)
1995년 6월 2002월드컵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1995년 10월 민자유치(37억) 사업자 선정(마일경제신문)
1997년 12월 예산 청소년 수련원 건축 하가(예산군수)
2000년 8월 (주)미래와 학생 법인 설립 / 예산 청소년 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사업 승계
2001년 1월 예산 청소년 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 하가(예산군수)
2003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 새단장 (www.esnp.co.kr)
2005년 10월 청소년 수련마을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 중
 임반 출현으로 채석허가를 득하여 공사 진행 중
 청소년 수련마을 부대사업으로 '예산 테마파크'를 SOC사업으로 조성 추진 중
2008년 6월 창간 21주년 기념행사 거행

▶ 제259호 1995년 7월 1일



극단 'you' 대표 유인촌

걸음마 떼고 원숙기로 접어들 때

학생신문이 앞으로도 8주년, 9주년, 10주년... 계속 변형하여 더욱더 알찬 정보자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학생신문사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럼 학생신문 애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 제323호 2000년 10월 10일



만능아이돌 스타 '보아'

난 사춘기가 지났어요. 지금부터 인생의 신나는 모험을 시작할 거예요.

근사하잖아요. 학생신문 화이팅!!

▶ 제412호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교육현안, 윤덕홍 부총리에게 듣는다

"평준화정책은 고교 입시경쟁률을 해소해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교 교육기회 확대,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점차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모 언론매체와의 최근 강남 집값 문제와 관련해 평준화 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평준화 유지 및 개선대책 마련 의지를 표명했다.

▶ 제416호 2004년 6월 23일 수요일



창간 16주년 축사 - 부산광역시 교육감 설동근

학생신문, 청소년 교육환경의 지킴이

학생신문의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학생신문은 지난 1988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올바른 인성교육에 일조한다는 사사 아래 창간되어, 학생 대상 전문 주간지로 현재 416호를 발행하기까지 때로는 교육동반자로서 교육발전을 선도해오셨습니다. 신문같이 우리 교육을 선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 제426호 2005년 6월 7일 화요일



'국민 여동생' 문근영, 그 소녀의 이름다움을 만나다

학생신문은 학생들의 권의대변과 함께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학생을 위한 신문이 됐으면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 제427호 2005년 6월 23일 목요일



창간 17주년 축사 -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세계일류도시 서울, 학생들의 좋은 친구 학생신문

학생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우리의 꿈과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여러분처럼 서울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제427호 2005년 6월 23일 목요일



창간 17주년 축사- 민주당대표 국회의원 한화갑

유익한 정보제공자로서 바른 길잡이가 되길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하며 청소년 교육의 안내자 역할을 해온 「학생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신문」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실력을 갖고 닦는데, 훌륭한 정보 제공자로서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427호 2005년 6월 23일 목요일



창간 17주년 축사- 국회의원 홍문표

학생의 산들바람 학생신문

산들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초여름인 이때 17주년이란 긴 시간동안 학생의 산들바람이 되어 준 학생신문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7년 동안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필요한 곳을 긁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 학생신문이 앞으로는 더욱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길 희망합니다.

▶ 제427호 2005년 6월 23일 목요일



창간 17주년 축사-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박철언

마술처럼 젊어진 학생신문

학생신문과는 체육청소년부 장관 시절부터 많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마술처럼 젊어지는 학생신문사의 Renewal 편을 보며 기쁜 마음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학생신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제427호 2005년 6월 23일 목요일



인터뷰 - 연기자 장근석

반짝스타보다는 오래 기억되는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어

이직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제 또래의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구요.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 제431호 2005년 10월 21일 금요일



교육감 취임 축하 인터뷰 -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

교육가족 인화와 학력제고에 최선

교육감 권한 위임 학교장 재량 늘릴 터

교실수업 향상에 장학, 재정 집중

▶ 제495호 2009년 4월 21일



인터뷰 - 이완구 충남도지사

전국최초 기숙형 청소년 대안교육센터 건립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희망 프로젝트 시행

인터넷 깨페까지 만들어 주민에게 친근한 도지사로 변신